

documenta 15 : 집단적 예술실천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협업의 실험, 그 지속 가능성을 향하여

곽 소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어린이문화팀 과장

독일 중부 도시 카셀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5회 도큐멘타(documenta)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집단적 예술실천들을 상호 연결하고, 연대와 협업에 기반한 공동의 지적, 경제적 자원 구축과 공유를 위한 모델 실험의 장으로 기능했다. 본 브리핑은 이번 도큐멘타가 제시한 개념과 비전, 실천을 소개하여 기존의 예술제도와 미술 시장의 안과 밖에서 이러한 대안적 모델 실험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독일 중부 도시 카셀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15회 도큐멘타(이하 도큐멘타 15)가 개최되었다. 1955년부터 5년 마다 개최되는 도큐멘타는 글로벌 동시대 미술의 현재를 조망하고 동시대 미술과 정치, 사회, 문화의 접점에서 담론을 선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전시행사 중 하나이다. 이번 도큐멘타 15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콜렉티브 루앙루파(ruangrupa)를 예술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개막 전부터 큰 화제와 기대를 모았다. 이는 백인, 남성, 서구 중심의 예술감독 선임의 관례를 해체한 파격적인 결정으로 글로벌 동시대 미술에 대한 비유럽적/비서구적 관점과 소위 남반구(Global South)에 대한 담론, 집단적 예술실천이 이번 도큐멘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갖게 했다.

반면, 개막 이전 올해 초부터 독일 미디어에서는 도큐멘타 15의 참여 예술가나 그룹의 출신과 정치적 지향성을 근거로 도큐멘타 15에 대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의혹과 논쟁이 시작되었다. 개막 시점에 공개된 인도네시아 예술가 그룹 '타링 파티(Taring Padi)'의 대형 걸개그림 '민중의 정의(People's Justice)'가 작품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림에

묘사된 일부 모티브로 인해 반유대주의적 작품으로 해석되면서 반유대주의 의혹과 논쟁은 정점에 달았다. 이 걸개그림은 개막 직후 철거되었지만, 개막시점부터 전시기간 내내 독일 정치권과 미디어에서는 이번 도큐멘타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었고 반유대주의 논쟁은 지속되었다. 동시에 독일 미술계와 지식계 일각에서는 과열된 반유대주의 논쟁에 가려져 도큐멘타 15를 바라보는 시각이 축소되어 이번 도큐멘타가 제시한 예술적 실험과 비전, 동시대 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의미와 가치, 전망 등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그림 1. 도큐멘타 15 키비주얼 © documenta fifteen 2022
(출처 : documenta fifteen 2022)

■ ‘룸붕(lumbung)’의 실천 과정: 전시 개념과 방법론

이번 도큐멘타 15의 개념과 주제, 큐레이팅 방식은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참여와 협업, 다른 콜렉티브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루앙루파의 예술실천의 연장선에 있다. 루앙루파가 제시한 도큐멘타 15의 핵심 개념인 ‘룸붕(lumbung)’은 인도네시아어로 “잉여 수확물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저장하는 공동의 쌀 저장소”를 의미하며, 예술적, 경제적 모델로서 “공동체, 공동의 자원 구축 그리고 공정한 분배”와 같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적 토대, 유머, 관대함, 독립성, 투명성, 검소함, 재생”의 가치를 내포한다. 또한 실천적 개념으로서 ‘룸붕’에 기반한 집단적 작업방식은 실제 전시기획과 전시를 만들어가는 구조와 과정, 전시 운영의 전 영역에서 구현되었다. 즉 도큐멘타 15는 문화적 실천을 위해 공동체 원리와 협업을 토대로 예산, 인력, 지식, 아이디어 등 물질적, 비물질적인 모든 공유 가능한 자원을 상상하고 구축하며, 분배하고 사용하는 하나의 지속 가능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 가는 실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룸붕의 실천 과정으로서 도큐멘타 15를 실현하기 위해 루앙루파가 전시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권위적 감독체계가 아닌 협업에 기반한, 수평적인 집단적 큐레이팅 방식을 선택한 것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이들은 먼저 룸붕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아시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14개 콜렉티브를 ‘룸붕 인터-로컬 회원(lumbung inter-lokal member)’으로 초대하여 다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53개/명의 콜렉티브와 개인 예술가를 ‘룸붕 예술가(lumbung artist)’로 초청했다. 이 67개/명의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은 연쇄적인 방식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적인 예술가,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대하였고 최종적으로 1,500여 명의 참여자들이 룸붕 실천 과정을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룸붕 회원과 예술가들은 대규모, 소

규모 단위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지역적 맥락과 활동,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상호 연대와 배움의 시간을 축적하고, 공유된 관심사에 따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거나, 공동 예산의 분배와 사용, 전시장소를 결정했다. 또한 도큐멘타 100일 동안 공간, 지식, 장비 등 공동의 자원을 공유할 방법과 이번 도큐멘타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와 협업을 그 이후에도 지속할 방법을 토론하며 공동의 지적, 경제적 자원을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 구조를 개발하였다.

루앙루파가 전시도록에서 밝혔듯이, 도큐멘타 15는 특정 주제가 아닌 위와 같은 실천에 기반을 둔다. 즉 도큐멘타 15는 룸붕, 공유 재산 혹은 이와 같은 종류의 개념과 주제에 대한 작품이나 동시대 미술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집단적 예술실천을 전시성 프로젝트로 제시하고자 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앙루파는 신작 제작을 의뢰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전시하는 논리를 따르는 대신, 참여 콜렉티브와 예술가들로 하여금 각자가 자신의 장소와 지역적 맥락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며 그 과정에서 산출된 작품이나 오브제, 기타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수집, 확보하고 그들의 실천 방법을 카셀로 ‘번역’하도록 했다. 여기서 루앙루파는 참여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자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번역이며, 번역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다른 잠재적 사용자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여는 시적인 가능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큐멘타 15의 참여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이 각자의 실천으로부터 상호 자원을 공유하고 배우는 것처럼, 관객 또한 이들의 다양한 예술적 실천, 그 맥락과 구조에 접속하며 잠재적 사용자로서 번역과 룸붕의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총 25,0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의 32개 전시 장소에서 진행된, 룸붕의 실천 과정으로서 도큐멘타 15 전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린 과정적 성격을 갖는다. 전시장소 또한 모임장소이자 토론과 배움의 장소, 주거 공

간이자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일상에 뿌리를 둔 예술실천을 경험가능하게 했다. 다수의 참여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은 전시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거나 변화시켰고, 워크숍, 퍼포먼스, 강연, 영화 상영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이런 과정적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요소로 100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2. 도큐멘타 15: 기자 회견, 단체사진, Auestadion, Kassel, 2022.06.15.

(출처 : photo: Nicolas Wefers)

■ 대안적 지식의 저장소이자 배움의 장

룸봉의 실천 과정으로서 도큐멘타 15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전시장소로 도큐멘타의 역사적 장소이자 주 전시장인 프리데리치아눔 미술관(Museum Fridericianum)을 지목할 수 있다. 이 미술관은 작품이 전시되는 화이트 큐브를 넘어서, 어린이집, 도서관, 주거 공간 등 예술과 일상이 혼재하는 일종의 생활과 학습 공동체의 공간이자, 공유와 협업의 베이스캠프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11개의 콜렉티브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공간을 관리,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100일 동안 관객과 함께 공유와 협업을 실천하였다.

이 전시장에서는 루앙루파가 다른 콜렉티브(Serum, Grafis Huru Hara)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8년에 설립한 교육/지식 플랫폼인 ‘구드스쿨(Gudskul)’이 운영하는 공간 이외에도, 아프리카, 중

동, 동유럽, 아시아 지역의 예술, 여성과 흑인 운동, 영화 운동, 교육 활동 등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들을 망라한 아카이브들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제리 여성 투쟁 아카이브(Archives des luttes des femmes en Algérie)’는 1962년 독립 이후 알제리의 페미니스트 집단과 여성 운동에 대한 기록 자료를, ‘블랙 아카이브(The Black Archives)’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역사와 흑인 운동, 초국가적 저항의 연대에 관한 서적과 잡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로 구성된 방대한 컬렉션의 일부를 소개하며 잊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가시화한다. 아시아 현대 미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홍콩의 비영리 단체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는 인도 바로다 미술대학(Art Academy Baroda)를 중심으로 한 예술 운동, 1997년부터 2008까지 태국에서 활동했던 그룹 ‘우머니페스토(Womanifesto)’의 페미니스트 비엔날레 관련 자료 및 아시아 공연 아카이브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집단적 예술실천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한다.

그리고 이 전시장에서는 몇몇 필름 콜렉티브의 영상들도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북부 로자바(Rojava) 자치 지역에서 2015년에 설립된 ‘로자바 필름 공동체(Komîna Film a Rojava)’는 영화 제작과 상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전쟁의 영향에 주목한 영화를 제작하거나 공동체의 구전 전통과 지역 문화를 기록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공동체는 이번 도큐멘타를 위해 자체 제작한 영화와 쿠르드 영화사의 주요 작품들로 구성된 필름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로자바 필름 아카데미(Rojava Film Academy)’를 대안적 교육의 모델로 소개하는 비디오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또한 지속되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는 바그다드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했던 이니셔티브 ‘사다(Sade)’의 영상들도 눈에 띈다. 이 영상들은 이번 도큐

멘타를 위해 ‘사다’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제작한 영상들을 선집의 형태로 모은 것으로, 정치경제적 파국과 혼란 속 이라크에서의 삶과 노동 조건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구체적인 정치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 교육, 전시, 출판, 아카이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안적, 실험적 예술실천을 모색하며 지식을 생성, 교류하는 다수 콜렉티브들의 아카이브와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이 콜렉티브들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예술가 공동체 ‘Keleketla! Library’, 콩고의 루뭉바쉬에서 2010년에 설립된 예술가-큐레이터 집단 ‘Centre D’art Waza’, 튀니지의 가장 낙후된 도시 레데예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플랫폼 ‘Siwa Plateforme’, 2015년 우간다에서 설립된 콜렉티브 ‘Another Roadmap Africa Cluster(ARAC)’ 등이다. 이들 중 ARAC는 예술과 교육에 대한 지배적인 서구적 사고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예술매개 방법과 어휘를 개발하는 집단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어나더 로드맵 스쿨(Another Roadmap School)’에 속하며, 자신들의 활동과 경험을 도큐멘타 100일 동안 집단적 지식 매개와 수집을 수행하는 ‘스쿨 북 프로젝트(Schoolbook project)’를 통해 공유한다.



그림 3. 도큐멘타 15: 아시아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2022, 블랙 아카이브(The Black Archives), 2022, 설치전경, Fridericianum, Kassel, 2022.06.11.

(출처 : photo: Frank Sperling)

■ 공유된 관심사 1: 집단적 자원 경영과 예술 실천의 기반으로서 땅

도큐멘타 15에는 삶의 근간이 되는 땅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다. 땅과 토양, 집단적 거버넌스, 잃어버렸거나 되찾은 땅에 대한 기억, (도시) 정원 가꾸기는 도큐멘타 15에 소개된 다수 프로젝트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 콜렉티브나 예술가들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의 삶과 지속 가능성, 독립적인 예술 실천이 토지 수탈과 개발, 토지 보유를 위한 자금 부족,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예술실천을 통해 땅의 의미를 재고하고 땅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태국 랏차부리(Ratchaburi) 지역의 농포(Nong Pho)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예술가 이니셔티브 ‘Baan Noorg Collaborative Arts and Culture (Baan Noorg은 태국어로 ‘땅, 농촌 지역 또는 내륙으로’를 뜻한다)’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예술실천을 지원한다. 이 그룹은 예술가, 연구자, 전문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이론적, 실천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사회비판적 예술을 연구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정치·문화적 자본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우유나 비료 같은 지역 자원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지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 그룹은 이번 도큐멘타를 위해 독일과 태국의 낙농업, 그림자 인형극,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이질적인 것과 농포와 카셀을 상호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물을 도큐멘타 할레(documenta Halle) 전시장에서 선보이고 워크숍을 조직했다. 농포는 1968년 전 세계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에서 낙농업으로 전환한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낙농업으로 소농들을 장려하기 위해, 이 그룹은 농포와 카셀 낙농장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카셀의 스케이터보더들을 농포로 초대하여 이 지역의 현안을 알리고 농포의 어린이들

을 위해 중고 스케이트보드를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공동체, 청소년 문화, 지역의 역사와 지식을 매개하여 상호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땅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참여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은 도큐멘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 ‘룸붕 랜드(lumbung Land)’를 구성하고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도큐멘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왔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땅은 대안적, 집단적 경제 모델로서 룸붕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점 중 하나이며, 하나의 공동체가 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고 룸붕 가치에 기반한 경제와 독립적인 예술 실천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워킹그룹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점에서 땅의 공동 소유 또는 성장, 경영을 위한 총체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문화와 농업, 생태를 결합한 농촌 개발 모델을 실험하고자 한다. 또한 이 워킹그룹의 회원들은 땅에 대한 담론적 활동 이외에도 자체적인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집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 워킹그룹의 회원 중, 예술과 농업, 영토의 접점에서 땅에 기반한 협업과 경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스페인의 콜렉티브 ‘인랜드(INLAND)’는 자연사박물관 전시장에서 농업 경제의 잠재력과 관련된 그들의 현재 관심 주제인 ‘주거와 확장된 풍경, 경제와 협업, 구성된 지식과 배움’을 설치 작업을 통해 제시하고 이들이 개발한 일종의 작품이자 지역 공동체 화폐인 ‘치즈 코인(cheesecoin)’을 소개했다. 또한 인랜드는 워킹그룹을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예정된 땅 관련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자문 활동, 현재 단종재배 숲을 다양한 생물종, 농업과 임간 축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전환하는 활동 그리고 학습 경험과 다른 회원들을 위해 스페인의 버려진 마을을 재건하는 것 등 다양한 활동을 제안했다. 또 다른 회원 ‘자티왕이 아트 팩토리(jatiwangi art factory)’는 20세기 초 점토 채굴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벽돌 산업을 발전시켰던 인도네시아의 자티왕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룹으로, 점토를 사용한 프로젝트와 페스티벌, 레지던시, 전시, 라디오/TV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시대 예술과 문화적 실천을 농촌 지역의 삶 속에 맥락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그룹은 이번 도큐멘타를 위해 농촌 공동체 네트워크의 초국가적 정상회담인 ‘신 농촌 의제(New Rural Agenda)’를 제안했고, 정상회담은 지난 6월 21일 도큐멘타 15에서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담은 엘리트들의 일반적 회담의 모델을 역전시켜 ‘아래로부터, 가장자리로부터’ 구상된 것으로 진보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을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지구 주민의 존엄 현장’을 작성했다. 또한 이들의 산림 관련 프로젝트는 신성한 숲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회복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숲의 일부가 될 4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참가자들은 흙벽돌로 만든 인증서를 받고, 구매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NFT 인증서를 받는다. 모든 토지가 판매되고 식재되면 산림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숲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생림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도큐멘타 15 이후에도 이 워킹그룹의 활동은 계속된다. 회원들은 2022년 11월 남아프리카에서 콜렉티브 ‘메이드유룩(MADEYOULOOK)’이 주최하는 행사에 모여 도큐멘타 15의 학습 경험을 평가하고 향후 협업을 계획할 예정이고, ‘자티왕이 아트 팩토리’는 중부 자바에서 ‘신 농촌 의제’ 관련 활동을, ‘인랜드’는 스페인 북부의 소유지에서 수확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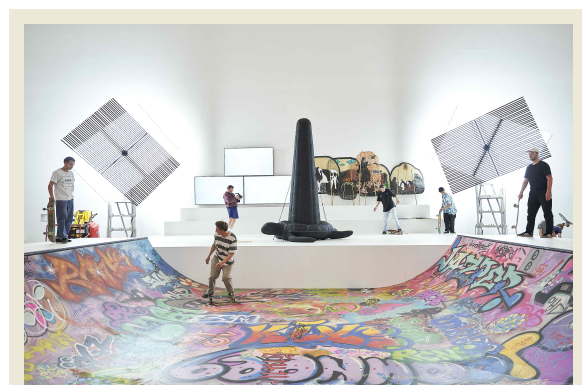


그림 4. 도큐멘타 15: Baan Nborg Collaborative Arts and Culture, 사물의 의례(The Rituals of Things), 2022, 설치전경, documenta Halle, Kassel, 2022.06.13.

(출처 : photo: Nicolas Wefers)

■ 공유된 관심사 2: 지속 가능한 대안 경제 모델

다수의 참여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제도나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활동한다. 이런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경제적 생존과 독립은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이다. 동시에 도큐멘타 15는 룬붕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경제 모델의 실험을 중심에 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도큐멘타 15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집단적 예술경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 콜렉티브들은 다수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워킹그룹들의 목표는 각자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재정 의하고, 전 세계 예술가-콜렉티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도큐멘타 15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집단적 차원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 콜렉티브들과 예술감독팀은 도큐멘타 준비 기간부터 경제 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며 ‘룬붕 상점(lumbung Kios), 룬붕 갤러리(lumbung Gallery), 룬붕 랜드(lumbung Land) 및 룬붕 화폐(lumbung Currency)’와 같은 워킹그룹을 구성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도큐멘타 15의 물리적 공간(전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험되었다.

예를 들어, 워킹그룹 ‘룬붕 상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점들의 분산된 네트워크로, 참여 예술가와 콜렉티브, 지역공동체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입 창출을 목표로 하며, 유통 채널을 분산시키고 대안 경제를 실험하는 시도이다. 두 개의 물리적 ‘룬붕 상점’이 이번 도큐멘타의 거점공간이자 안내소인 ‘루루하우스(ruruHaus)’와 카셀 동부의 산업지구에 위치한 ‘휘브너(Hübner)’ 전시장에 마련되었다. 또한 제품의 카탈로그는 온라인 플랫폼인 ‘lumbung.space’를 통해 제공되고, 이를 통해 룬붕 상점은 도큐멘타 15 이후에서도 전 세계의 작은 상점들의 네트워크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룬붕 상점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일부는 공동의 재원이 되어 참여 콜

렉티브와 예술가들의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분배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협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제작한 제품의 판매는 참여 예술가와 콜렉티브, 지역공동체에 그들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실현하는 데 재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워킹그룹 ‘룬붕 갤러리’는 공동으로 운영되고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비-투기적이고 재생적인 갤러리 모델을 실험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수집, 전시 및 저작자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유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작품의 가격은 투기적인 시장 가격이 아닌, 콜렉티브와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재정적 필요와 제작비용, 기타 변수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비금전적인 교환 시스템과 구매 가능한(저렴한) 예술작품도 포함된다. 도큐멘타 기간 동안 도큐멘타 자체는 룬붕 실천과 그 가치에 따라 운영되는 갤러리로서 역할하며 참여 예술가와 콜렉티브의 예술적 생산을 지원했다. 룬붕 갤러리는 등록된 협회로 도큐멘타 15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 존재하며 예술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워킹그룹 ‘룬붕 화폐’는 추상적인 가치 대신 공동체의 구체적인 필요에 기반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공동체 화폐를 개발하여 자체적인 교환 시스템을 만들고자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참여 콜렉티브는 공동체 화폐를 개발하였고, 도큐멘타 15 이후에도 상호 연결을 강화하며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은행 시스템의 관료제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들 간의 교환 시스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도큐멘타 15: 전망과 과제

지난 9월 25일 도큐멘타 15 전시와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이벤트는 100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73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이 수치는 2017년 제14회 도큐멘타의 관람객 수

(891,500명) 보다 약 17% 낮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을 넘어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큐멘타 15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적 예술실천들을 상호 연결하고 롬봉의 개념과 가치, 연대와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의 지적, 경제적 자원 구축과 공유를 위한 모델을 실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동시에 도큐멘타라는 국제 거대 미술전시와 동시대 예술 중심부의 자원과 이를 향한 주목을 전 세계 여러 지역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집단적 예술실천을 위해 분산시키고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도큐멘타 15는 100일 간의 제한된 시간적 프레임 넘어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자생적, 독립적 플랫폼과 워킹그룹을 통한 협업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도큐멘타 15를 매개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연대, 공동의 자원 구축과 공유를 위한 협업의 실험과 시도들이 향후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기존의 예술제도와 미술 시장의 안과 밖에서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할 만하다.

개막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도큐멘타 15를 둘러싼 반유대주의 논쟁은 도큐멘타의 구조와 실행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도큐멘타의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게 했다. 1인 감독이 전시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체계가 아닌, 이번 도큐멘타의 집단적 큐레이팅 방식은 실제로 반유대주의 논쟁을 촉발했던, 서두에 언급된 작품에 대해 누구도 결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개막 직후 독일 연방 문화미디어장관은 ‘도큐멘타를 위한 5-포인트-플랜’을 제시하며 예술적 자유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고 지원주체로서 연방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도큐멘타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했다. 반면 도큐멘타를 지원하는 민간조직인 ‘도큐멘타 포럼(documenta forum)’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동시대 미술전시로서 도큐멘타의 원칙(수준 높은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술감독 선정위원회의 구성, 선정된 예술감독의 전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고수할 것을 성명을 통해 호소했다. 도큐멘타 포럼은 도큐멘타 구조에 대한 개입이 예술적 자유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큐멘타 15를 둘러싼 뜨거운 반유대주의 논쟁의 원인을 독일 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 규명하는 것도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도큐멘타 연구소(documenta-Institut)’는 ‘도큐멘타 15 사례에서 반유대주의와 후기 식민주의 논쟁’을 주제로 ‘프랑크푸르트 안네 프랑크 교육시설(Frankfurter Bildungsstätte Anne Frank)’ 및 ‘프랑크푸르트 응용과학대학(Frankfurt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도큐멘타 15를 둘러싼 반유대주의 논쟁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분별력 있게 다루어지고, 도큐멘타 구조에 대한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Hatje Cantz Verlag GmbH (2022), documenta fifteen HANDBUCH(documenta 15 전시 도록).

‘documenta 15’ 웹사이트, Available :

<https://documenta-fifteen.de/>

documenta 15(2022.09.25.), [Pressemappel

documenta Fifteen, Available :

<https://documenta-fifteen.de/pressematerialien/>

Die Bundesregierung(2022.06.23.), [5-Punkte-

Plan für documenta] Roth:

“Menschenwürde unverrückbar”, Available:

[7](https://www.bundesregierung.de/breg-</p>
</div>
<div data-bbox=)

de/bundesregierung/bundeskanzleramt
/staatsministerin-fuer-kultur-und-medi
en/aktuelles/roth-menschenwuerde-un
verrueckbar—2055528

documenta forum(2022.09.27.), [NEWS/
PRESSEMELDUNG/ STELLUNGNAHME]
Das Prinzip der Freiheit der
Künstlerischen Leitung muss erhalten
bleiben, Available :
[https://documentaforum.de/das-prinzi
p-der-freiheit-der-kuenstlerischen-leit
ung-muss-erhalten-bleiben-statement-
des-documenta-forums-zum-ende-der
-documenta-fifteen/](https://documentaforum.de/das-prinzip-der-freiheit-der-kuenstlerischen-leitung-muss-erhalten-bleiben-statement-des-documenta-forums-zum-ende-der-documenta-fifteen/)

documenta-Institut(2022.10),
Forschungsprojekt analysiert
Antisemitismus-Kontroverse, Available :
[https://www.documenta-institut.de/arti
kel/antisemitismus-und-postkoloniale-
debatte-am-beispiel-der-documenta-fi
fteen](https://www.documenta-institut.de/artikel/antisemitismus-und-postkoloniale-debatte-am-beispiel-der-documenta-fifteen)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소연(2022). “documenta 15 : 집단적 예술실천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협업의 실험, 그 지속 가능성을 향하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0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곽소연 soyeangoak@gmail.com

ACKIS브리핑 작성 2022.12.16.

#독일 #documenta #documenta15 #Kassel
#collective_practice #lumbung #lumbung_land
#lumbung_economy